8강 노장사상과 행복

(1교시)

◆ 존 레논과 노자

※ 학습목표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의 가사에 비추어 노자의 사상에 접근한다.

▲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을 이름이 있다고 말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즉 도, 진리는 명명하는 순간 진리에서 벗어난다. 참 진리는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달될 수 없다.

「* 참고문헌
余培林 註譯, 新譯 老子讀本, 三民書局印行.
高田眞治/ 後藤基已 譯, 易經(上) 岩波文庫, 2006.
金谷治, 淮南子の 思想- 老荘的 世界, 講談社, 2005.
張鐘元 著/ 上野浩道 譯, 老子の思想, 道- 新しい思惟の道, 講談社, 2000.
楠山春樹, 老子入門, 講談社, 2006.
森 三樹三郎, 老子/荘子, 講談社, 2006.
陳鼓應 注譯, 莊子 今注 今譯, 中華書局,1994.」

* 참고서적: 『노자를 웃긴 남자』 (이경숙/ 자인)

▲ 노자의 無爲自然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즉, 꾸미지 않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노자에게 있어 행복한 삶이란 모든 인위적이고 꾸미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물의 본래상태에로 되돌아가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존 레논의 Imagine과 노자
- 「Imagine there's no heaven
(상상해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는 세상을)

It's easy if you try
(당신이 노력한다면 그건 쉬운 일입니다)

No hell below us
(그러면 우리 밑에 지옥도 없을 것이고)

www.artnstudy.com

Above us only sky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을 뿐)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Imagine there's no countries
(상상해보세요 국경이 없는 세상을)

It isn't hard to do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Nothing to kill or die for
(누굴 죽이거나 죽을 이유도 없겠지요)

No religion too
(종교도 없어지겠지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평화스럽게 사는 것을)

You may say I'm a dreamer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 부를지 모르지만)

But I'm not the only one
(나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I hope some day you'll join us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And the world will be one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Imagine no possessions
(소유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I wonder if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No need for greed or hunger
(소유가 없다면 탐욕도 굶주림도 없고)

www.artnstudy.com

A brotherhood of man
(사람은 모두 한 형제가 될텐데)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함께 나누는 것을)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 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존 레논은 여기에서 온갖 나눔과 분리야 말로 분쟁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세상을 인위적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본래 하나인 것은 나누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六親不和有孝慈, 國家昏亂有忠臣 (큰 도가 없어지니, 어짊이니 옳음이니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혜가 나오니 큰 꾸밈이 있게 되었고, 육친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효니 자애니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나라가 어지럽고 뒤숭숭하니까 충신이라는 말도 생겨나는 것이다.)

노자는 사람들 사이에 어짊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본래 있는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막으려고 뭔가 기획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평화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위와 나눔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이러한 것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몽상가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2교시)

www.artnstudy.com

◆ 주역과 웰빙

※ 학습목표
주역을 통해서 중국 사상사의 경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 소규모 농촌국가
노자 도덕경 80장에는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인구를 적게 하고 온갖 생활이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도 그것을 쓸 일이 없게 만들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노자는 소규모 농촌의 삶이야말로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주역과 노자와 장자의 철학

남성원리	여성원리
하늘	땅
낮	밤
아버지	어머니
어짊(仁)	옳음(義)
위	아래
앞	뒤
밝음	어두움
가는 것	오는 것
존경	천함
귀한 것	비천함
복(福)	화(禍)

주역은 음과 양에 입각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노자나 장자의 철학도 결국은 주역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을 기본으로 하여,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하늘은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고, 땅은 이를 받아들여 만물을 생성케 한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관찰에 입각하여 우주를 설명하고, 그에 입각하여 사회제도나 인간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도하려고 한 철학이, 중국 사상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도교와 웰빙(wellbeing)
중국사상에는 전통적으로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드물고, 이생에서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 중국인들이 타이치를 연습하는 것도 이들의 이러한 민족성을 잘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웰빙주의와 닮은 점도 있다. 오늘날 웰빙주의는 장자가 건강한 삶과, 삶의 연장을 강조하여 양생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이란 일차적으로 건강한 삶이며, 건강이 기초가 되어야 다른 여타의 행복에도 이를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이 우선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교시)

◆ 도와 행복

www.artnstudy.com

※ 학습목표
도의 개념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통해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한다.

▲ 反者道之動
反者道之動 말은 "(본래대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도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반(反)자는 "되돌아 감"이라는 뜻 이외에, 서로 상반 대립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자는 모든 만물은 본래 있었던 근원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문화는 지나치게 중추신경계에 입각한, 인간학이 중심이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인위와 작위 혹은 문화와 문명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일면성이, 다른 한 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한쪽을 보충함으로서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의 철학은 굳이 표현하자면 "균형이론"인 것이다. 지나침을 벗어나서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인 것이다.

▲ 노자와 道
빛과 어두움, 남자와 여자, 높음과 낮음 등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발견이 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법"이다. 이른바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는 무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 노자의 의도라 한다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존재에 집착하고 있다. 노자가 말하는 "하나"에 대한 경험은 우리들의 분별적인 판단 이전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적인 파악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존재는 비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즉, 내면에서 끊임없이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